

- 신바람나는 그림
- 함께 누리는 그림
-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발행인 홍대봉/발행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발행일 1989년 5월 1일/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36-11/전화 44-8942



신바람나는 그림학교 수채화교실 수강생의 작품

## — 시민미술강좌 신바람나는 그림학교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7월에 전시회) 3달간의 미술학교가 개강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입학식날 흔히 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때문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요를 배우느라 마음놓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총 수강생수는 수채화교실(오전)7명, 오후 8명, 목판화교실 12명, 사진교실 10명, 생활공예교실 4명으로 총 11명입니다.

88년 2월, 처음 열렸던 시민미술학교는

교실을 나누지 않고 미술전반을 고루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 미술의 전문성은 채우지 못하였고, 그 다음 진행된 강좌는 각 교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생활속의 참그림을 지향하는 우리그림의 방향이 통일적으로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엔 학교의 틀거리도 갖으면서, 교실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교실을 맡은 강사분들은 개강 2달전부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까를 함께 논의해

오면서 "신바람 나는 그림학교"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꼭 이루어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 "그림이란 그릴수록 어렵고 정말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만 배우는 것이고, 화가를 꿈꾸는 사람외에는 지속하기 힘들며, 그림감상은 더더욱 무얼 알아야 하지"라는 식으로 생각되어 왔던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신바람나고 즐겁고 항상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도록 하며 표현도구나 표현형식도 일반인들의 생활정서에 맞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제3회 그림학교에서도 좋은작품들

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작품을 전시하거나 상품으로 만들어 우리의 뜻을 넓혀나가자 합니다.

다음학교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며 이때는 민화교실, 만화교실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우리그림 사진기자 모집

매월 발행되는 우리그림 신문에 기자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전시회 사진, 신문기사 사진, 미술작품 사진, 행사사진 혹은 슬라이드를 찍고 이를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 보관하는 일을 합니다. 사무국에서 활동비는 보조가 됩니다.

# 신바람나는 거리

## 거리를 험상궂게 하는 현수막의 난무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드는 거리가 되어야

거리를 나서면 우리의 눈에는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여지도 없이 온갖 문자나 그림, 그리고 색깔들이 화살이 되어 마구 날아온다. 볼 거리에 대한 취사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다. 동네 골목길부터 큰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극장 포스터, 구인광고, 현란한 색깔로 입혀진 각종 간판들은 어쩌면 거리에 모여사는 시민들의 삶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거리의 표정이란 말이 어울릴 듯 하다. 하지만 이와같은 거리의 표정은 자연스러워야 하지,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꼴불견에 다름아닐 것이다. 올림픽 준비기간동안 서울시내 공사장 칸막이는 온통 얼룩덜룩한 그림들로 칠해졌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그림들은 거의 전부가 올림픽선전화들이었을 뿐 아니라 회색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어서 시민들의 입에서는 시각공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프랑스 파리의 한 도심지역의 공사장 칸막이에 국민학교학생들이 그린 벽화는 서울시 한 복판에 그려진 치졸한 올림픽 그림과는 발상부터 너무 대조적이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도심 지하철의 타일벽화를 빼 놓을 수 없다. 마치 목욕탕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도대체 시민의 정서와 건강한 미의식을 도외시한 지하철 벽화는 확실적인 군사문화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

의 애매모호한 수식어를 붙인 현수막은 시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떤 불안감까지 조성하고 있었다. 시청앞이나 경찰서 앞에만 붙였으면 모르겠으나 시내중심가에 꼭 그렇게 붙여야 하는 것일까. 제일 많이 현수막을 거는 백화점의 건물에도 된서리를 맞은 이후 자숙해서인지 그 현란한 색깔의 바겐세일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데 여전히 애매모호한 문구들은 판을 치고 있다. 5공때 만들어진 '선진조국 창조'나 '정의사회구현'이니 하는 용어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식상한 용어가 되어 있는가. '사회정의'라는 말과 '정의사회'는 같은 말로 여겨지는 데 말의 앞 뒤를 달리하면 괜시리 불온하게 보는 때도 있었다. 갖고 있는 조그만 사진에 '온당하지 않고 험악함'이란 풀이로 나와있는 불온이란 단어는 '국가 정책에 반하여 치안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이란 뜻으로 현수막에 쓰여진 것 같다. 국민학교시절 뼈라를 주위 경찰서에 갔다 주면 반공만화책을 주던 때도 있었다. 불온선전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뼈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현수막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주장을 담은 종으로 온당하지 않고 험악하게 보는 시각을 시민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다. 거리의 표정을 험상궂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봄기운이 화사한 안양 시내 네거리는 마치 불온 선전물만이 난무하는 거리로 여겨지게 된다.

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는 곳은 시청의 '새마을과'라는 부서이다. 다른 부서 명과는 다르게 이름만 보아서는 쉽사리 업무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바람나는 그림' 학교 홍보를 위해 현



수막 2개를 제작해 허가를 받으러 갔다가 보기 좋게 딱지를 맞고 나왔다. 빨간색이 반이 넘을 뿐 아니라 명조체나 고딕체로 쓰여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너무 많이 부쳤기 때문에 다 떼어 갖고와서 자인서를 쓰면 현수막 설치허가를 내 준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이었다. '신바람나는 그림'의 큰 글씨를 가운데 초록색으로 쓰고 양쪽에 빨간색 작은글씨로 강좌명을 쓴 것이기에 빨간색이 반이 넘는다는 말은 억지였다. 글씨체는 미술강좌라는 특성을 살려서 쓴 움직임이 듯한 글씨였다. 손으로 반나절 썼기 때문에 붓자국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담당자는 도시미관을 해 친다는 이유를 서슴없이 말했다. 아마 불온한 단체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담당자가 자인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한 것은 포스터 때문이었다. 시내에 무질서하게 붙여지는 포스터가 새마을과의 골치

인것으로 여겨져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허가된 게시판이 가문에 콩나듯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열쇠로 굳게 채워져 사전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문제다. 광고시대라 할 만큼 광고가 폭주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관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알고 붙여도 되고 시민들이 건강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애쓰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허락을 않는다는 것은 거리문화의 확실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재학중 건물주인의 허락을 받고 외벽에 벽화를 그린일이 있다. 그러나 완성도 되기전에 주인에게 압력이 들어오고, 제작자들이 경찰서와 새마을과를 왔다갔다 해야만 했다. 결국은 학생회와 연계운운하여 지워졌다. 극장간판에 보기 민망한 그림을 그리거나 폭력적인 그림이 그려져도, 원색적인 제목들이 큼지막하게 써있어도 별로 상관을 않는 당국에선 삭막하게 버려져 있는 벽에 우리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라치면 가차없이 '용공', '불온', '광고법' 운운하면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밝은 거리는 포스터가 정해진 게시판에만 붙어있고, 고딕체나 명조체로 쓰여진 현수막만 걸려있고 백화점건물벽에 꼬부랑글씨를 써도 괜찮고, 극장포스터나 간판의 그림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리일 수는 없다. 휴지만 없이 하면 밝은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리는 시민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거리는 도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커다란 안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안방에 거둬지고 애매모호한 문화가 판을 쳐서는 안된다. 상업주의로 찌든 문화에 시민들이 들러리가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안방은 우리가 장식해야 한다.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만드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썰렁하게 비어있는 벽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불온한 생각일까?

정승각



얼마전 안양시내에서 '불온선전물 특별수거기간'이란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삭막한 기운이 또 다시 느껴지는 때이기도 했지만 '불온'이라는 빨간색



## 미술공부는 어린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 어린이 미술교육에 대하여

어린이는 그들 나름의 흥미나 생각 또는 욕구를 표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공부는 어린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비록 낙서라 할지라도 어린이다운 즐거움, 슬픔, 무서움, 꿈, 상상욕구등을 표현하게 되며, 창조성도 길러지고 감정도 풍부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미술교육은 이러한 활동을 몸에 익히게 하여 조화로운 인간형성을 위한 기초를 훌륭히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미술시간을 제일 편한 시간으로 생각하거나 한편으로는 제일 자신없고 어려운 시간으로 마치 내어놓은 자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사들이 부담감을 갖게되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미술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병들고 비틀려 버린 어린이문화의 현실을 방기하는 것이자 욕심많은 어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어린이 문화의 건강성이 파괴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이 문화의 문제점은 일선교사나 사회단체 또는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핵심은 교사에게 있는 만큼 교사가 따뜻한 가슴과 예리한 눈동자를 갖고 새로운 인간을 기르기 위해 활력에 차 있으면 건강한 어린이, 올바른 어린이가 길러져 나옵니다.

학교교육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기있는 교사들에 의해 어린이 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시각매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미술교육연구를 위한 모임을 통해 서로 현장체험을 나누고 이를 이론화하여 현장에 적용시켜보는 등 새로운 미술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교사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승각

\* 우리그림에서는 5월말 경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미술교육에 대한 특별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 (이론및 실기)을 통해 참다운 미술교육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이후 연구모임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일하는 사람들

### 삼덕제지노동조합을 찾아

경비실에서 가르쳐준 방향으로 걸어가던 기자는 봄날 답지않게 뜨거운 햇볕에 짜증이 났다. 가다가 길을 물으러던 경비근무자의 말과는 달리 넓은 마당에는 쌓아놓은 종이뭉치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겨우 만난 한 사람은 길물음에 저기 라고만 하고 가 버린다.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맘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뛰어나오며 어딜 찾느냐고 묻는다. 이 반가운 분이 바로 기자가 찾아가는 삼덕제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었다.

57일간의 긴 파업투쟁으로 안양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삼덕제지 노동조합은 '88년 9월에야 어용의 틀을 벗고 민주노조로 출범되었다. 이번 파업은 176명의 조합원에게는 28년간 눌러 쌓아온 분노와 잠재력을 처음 분출한 것으로서의 의의가 크며, 때문에 요구가 얼마만큼 관철되었건 이 싸움 자체가 노동조합의 승리라고 말하는 부위원장의 표정은 자부심과 긍지로 빛이 나는 듯 했다.

조합활동의 역사가 짧은 만큼 삼덕노조의 일상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문화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지만 노조간부들조차 어떻게 문화활동조직을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승리보고대회와 함께 열린 '노동의 햇볕' 판화



및 사진전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매우 관심있게 보고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스스로 해보고싶은 욕구를 느끼는것같지는 않단다.

지금은 6월에 있을 총회까지 조합원의 단결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차츰 노보발행이라던가 조합원의 취미활동을 위한 소모임의 결성을 이루어 갈 예정이며 이때 문화단체의 도움이 필요할것이라고 한다. 또 부위원장은 파업중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던 지역내 단체들의 관심이 파업종료와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쉽다며 특히 지역문화단체들이 노조와 계속 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정유정

# 노동자 걸개그림

지난 3월 초 우리그림 전문분과에서는 금성전선과 티엔디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걸개그림을 제작하였다. 이 글은 그때 참가

하였던 금성전선의 한 노동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걸개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와 과정을 적어보낸 것이다.



언젠가 집에 놀러온 회사동료가 방구석에 처박혀있는 화구들을 눈여겨 보았다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던거보다. 오늘도 파업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루를 지낼까 생각하면서 맨뒷줄에 퍼져있으니 과대의원이 다가와서 그림 그리는 곳으로 지원 좀 가자고 한다. 히히 웃으며 덧붙이는 말, 아가씨들도 온단다. 덜컥 겁이 난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로 된 형체를 가지고 무얼 그럴듯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살짝 피해버릴까' 이런 나의 생각을 알고있는듯 그냥 시키는 대로 물감만 칠하면 되지않겠냐며 끌어당긴다. 일단 가보기로 했다

## 어머머머하게 커보이는 화폭

네명의 동료와 다른 사업장의 아가씨 5명, 이렇게 10명 앞에 어머머머하게 큰 천이 펼쳐져 있었다 우선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진행을 지도하는 두사람과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니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

서 참고로 하라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배불뚝 사용자 노동자를 짓밟는 장면을 그리고 나니 그중 잘 그리는 것처럼 보였는지 자꾸 그리라고 한다. 서로 그림의 구석구석에 수정.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리다보니 처음의 막막했던 생각은 점점 사라졌다. 그날 헤어질 때 내일 또 와도 되냐고 물을 만큼.

##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걸개그림이 완성되고 고사도 아주 유별나게 지내고 뒷풀이를 할 때 우리그림 일꾼들이 들이닥친다. 완성된 그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화살이 주로 내가 그린 부분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또 잘알지 못하는 그림에 대해 이는 척 해야 될 내 알팍함 때문이다. 걸개그림에 대한 나의 첫경험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였다.

## 동지의 희생이 진한 감동으로

파업 30여일이 된 어느날, 유은식 동지가 쌍동이빌딩 앞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아 얼마나 답답하면, 그가 가진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기에 그를 못 견디게 하였을까 아니면 못사람들이 말하는 만용일까. 아니다. 내가 알고있는 유은식씨는 과묵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동지다. 또 그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있는 쟁의부장이 아닌가. 또한 그의 정신 속에는 나 혼자 희생으로 단체협약 쟁취라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첫덩어리들을 녹여서라도 타파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감히 들 때 얼른 걸개그림이 떠올랐다. 그의 온몸이 불길에 휩싸일때 절규했던 것과 하고 싶은 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동지들에게 보여주고 그의 뜻을 좀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고 싶은 진한 감동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노조사무실을 드나들며 가로·세로 3m의 화폭을 얻어내었다. 우리그림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상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동료 한사람과 함께 그림의 주제와 이야기들을 대충 정하고 커다란 종이에 요약해 세분하였다. 자료를 뒤적이며 부분 부분을 짜맞추는 사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몇몇 동지들도 함께 머리를 짜내고 제법 말로라도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 붓 끝에서 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천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여러번의 실수를 거듭하고 다시 전지에다 밑그림을 그려 매직으로 선명하게 해 놓은 다음 천 밑에다 대고 본을 뜨니 깨끗하였다. 그림의 주제인 분신하는 장면에는 모델이 서너번이나 바뀌었는데 한 친구는 고통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려는 요구에 머리가 웃으면서 제쳐진다. 처음 같이 그림을 시작한 친구는 사용주를 끌고가는 백골단의 모습을 끝내 유화로 그리겠다고 고집한다. 그리

다 말다, 들락날락 하는 동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되는 내가 혹시 이기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이 그림에 대한 간곡한 바람과 의욕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밑그림이 완성되니 일사천리로 먹선을 치고 채색을 하고,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계속 쪼그리고 앉아 채색을 하는 동료들은 어디서 그런 인내심이 나올까. 아마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우리들에게 와 닿는 강한 외침이 붓끝에서 묻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드디어 마지막 손질을 하고보니 곳곳이 허전하고 짜임새가 빈약해 보였다. 어찌라 다 그런 그림인데... 구호가 들어갈 곳에 글씨를 잘쓰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는 휴식을 하였다.

## 그림을 바라보는 700여 동지의 얼굴

월요일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점안식을 준비하는데 아차! 그리는 것에만 열중하여 어떻게 걸것인지는 생각도 못했다.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옷수선집에 가서 끈을 달아왔다.

오후 집회, 700여명의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점안식을 하게 되었다. 그림을 바라보는 동지들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침체된 분위기가 가시고, 유은식 동지의 분신모습, 하고싶은 이야기, 풍자 등을 그림으로 봄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더 많은 동지들이 이 그림의 제작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따사로운 햇살을 노동자에게도

끝으로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따사로운 햇살은 노동자에게도 비춰져야하며 좀더 따뜻하고 밝은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도.

이태선

## 쉬어 가는 곳



접대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흥가슴만 남고  
고, 모오든 식물이는 가라

선동범시 중에서



## 작가와와의 만남

### 박신자



박신자씨는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미술지도를 하고 있는 안양출신 미술인이다. 전에 몇차례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은 경험이 있는 그녀는 올해 초 그룹전 '365일전'을 안양에서 기획전시하였다. 기획의도는 서울 중심의 미술문화에서 탈피하여 이곳 안양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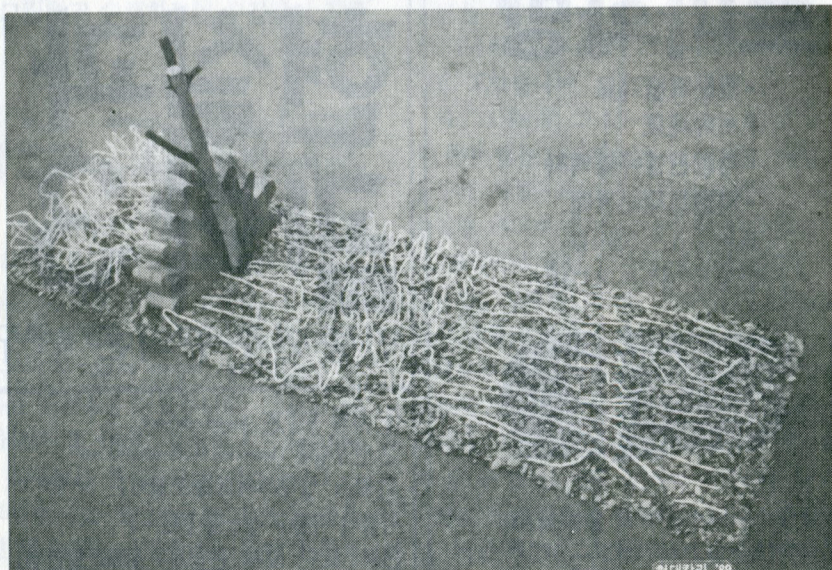
우리그림 창립시 발기인으로서 우리그림과 인연을 맺었으며 지금 바쁜 일과 중에도 시민미술강좌의 수채화 강사로 일하고 있다. 자상하고 열심히 그림지도하는 모습은 "작가는 삶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삶을 공유하는 작품을 해야한다"는 자신의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듯하다. 우리그림의 강사로 나오면서 올바른 미술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미술문화 정착을 위한 미술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보다 더욱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요사이 민중미술이라는 작품은 색상이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강하여 거부감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

## 삶을 공유하는 작품을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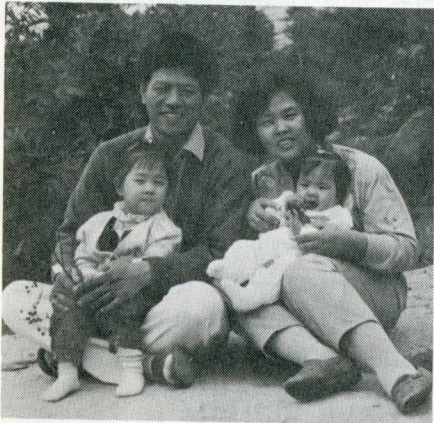
할 수 있는 미술작품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를 위해 미술 표현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다. 전시회를 위한 작품구상과 준비, 학생 그림지도, 우리그림 시민미술학교 수채화교실 강의 등 지침이 없는 움직임은 진실한 삶을 표현하려는 강한 의욕과 정열에서 나오는 힘인 듯하다. 조각을 전

공했지만 조각작품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오리란 기대감을 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녀가 말했듯이 더욱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 창작되는 것이다.

한범희



“가까운 생활주변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싶어”



직장일을 마치고 저녁9시경 허찬씨는 집으로 돌아온다. 현재 안양의 뉴 아카데미 현상소에서 영업직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부인이 애순씨, 두딸 영림, 정림과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평소 성실하고 근면해야 한다는 그의 생활관에서, 그리고 사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지금의 직업에 충실히 대하게 되는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그림에서 3기 사진수강을 마치고 사진동우회를 만들기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30일경 발족될 예정인 동우

회의 의미를 '우리그림에서 사진반이 성장할 수 있음은 앞으로 일반시민이 사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것'이라고 장담하는 그의 얼굴엔 희망이 있다. 회원으로서 사진을 계속하고 싶고 특히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허찬씨는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근교에서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는것이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그림에 대한 바람을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구상과 계획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져야 할것과 하고자 하는 목적제시가 분명해야 한다'라면서 '미술만의 강조보다는 종합적인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면'한다 회원에 대한 적극적 배려의 필요성과 어느 부분에서나 서서히 내용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는 결혼 5년째 접어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에게로 직접경험하게 하고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장래계획이 있다면 현재에 충실하고 허황된 미래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밝게 웃는다.

권애숙

### 5월의 정열로 태어난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이명자(5. 29)
- 임근희(5. 4)
- 황용훈(5. 7)
- 원미나(5. 22)
- 곽인혁(5. 3)
- 한성현(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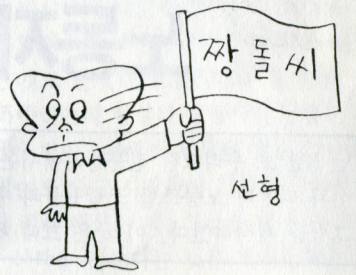


### 광주항쟁 계승을 위한 그림제작을 위하여



1980년 봄, 우리에게 있어 5·18은 이나라 역사에 찬연히 빛날 민족민주운동의 분수령이었으며, 불의를 배격하고 인간의 신성한 양심과 주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바쳐 독재에 항거했던 민족승리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광주 항쟁은 6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민중화 시민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5월 그날이 다시오면 이땅에 엄연히 살아 숨쉬는 진실앞에 숙연해 집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함께 모여 그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5월 3일~11일 까지 오후7시~9시에 진행됩니다. 이 그림제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그림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5월 2일 화요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 사이) 참가 자격은 회원, 수강생, 학생, 시민 등으로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선형



### 떡살무늬 액자·벽걸이 판매

우리 어머님께서는 떡살관으로 떡에 무늬를 넣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그림에서 떡살무늬 액자와 벽걸이를 제작하여 판매합니다. 축하선물을 하거나 실내장식용으로 걸어 놓기에 딱 좋습니다. 재질 스티랙자, 삼베에 실크스크린 가격 액자 25,000원, 벽걸이 10,000원

### 지역소식

## 연극단 큰힘

### “마침내 가리라”공연

안양문화운동연합의 연극단 큰힘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연극 “마침내 가리라”를 공연한다. 외국기업 ‘모토로라’를 사례로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절실하게 형상화한 이 연극은 서울공연에 앞서 4월 24일 티엔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속에 현장공연을 마쳤다.

(문의 48-3844)

제2회 민족극 한마당 참가작품  
극단 **큰힘** 정기공연  
필필살아서 투쟁하는 진짜노동자  
공동연출 공동제작  
'89. 5. 8(월) ~ 5. 10(수) 4:30 ~ 7:30  
363-7353 예술극장 **한마당**  
공연문의: 안양문화운동연합 연극단 **큰힘**  
0343-48-3844

### 안양독서회

### — 향기로운 흙가슴 금강의 시인 신동엽

안양독서회 향기로운 흙가슴 금강의 시인 신동엽

안양독서회는 4월 30일 6시 독서토론회소모임 주최로 시인 신동엽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신동엽시인에 대한

VTR 상영 및 그의 문학세계, 그리고 4·19의 역사적 조명등이 토론된다.

5월 28일은 아동문학과 글쓰기 교육에 대하여 이오덕선생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있다 (문의 46-8929)

## 세민사

기획·편집  
전산·수동사식 (출력기 구비)  
인쇄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82-5 (삼성빌딩 302호)  
전화 265-0084 272-0446

## 로마화방

- 전문미술재료
  - 서예재료
  - 각종판넬유화액자
  - 지점토재료판매
- 전화 3-5840  
판넬부 45-8136



안양역전 지하상가 사) 239 241호  
본백화점앞 지하상가)

### 사회과학 종합 무크 동심 새길

# 현실과 과학 3

## 민중민주주의론 연구

- ① 사적 유물론 김원진 편역 / 313면 / 3,000원
  - ② 반두링론 프스트라체 역음 / 248면 / 2,000원
  - ③ 맑스·엥겔스의 노동조합이론 이광우 역 / 250면 / 3,000원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2-1  
전화 324-5279 (편집부) 5280 (영업부)



아크릴네온싸인 현수막·실크인쇄 (상업미술전문점)

대표 이주관

안양시 안양2동 689-41  
전화 3-5491, 48-5491